**Monthly Report of March, 2009**

**RAON ATTI - FRIENDS OF ASIA Year 2**

**Philippines**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프로젝트 타이틀: 보건, 교육, 환경,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

**기간: 2009. 3, 5~ 3, 31**

**Ⅰ.** **HIGHLIGHTS OF THE ACTIVITIES**

* 오리엔테이션

일시: 2009년 3월 5일 ~ 8일 (4박 5일)

장소: Federation Office (YMCA of the Philippines)

목적 및 내용 : 필리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 및 현재의 상황)

필리핀 YMCA의 역할에 대한 소개

라온아띠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원봉사자로서의 마음 다지기

* HEELP(HEALTH, EDUCATION, ENVIRONMENT AND LIVELIHOOD)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
*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목적의식 고취와 자세 정립.
* 마닐라 주변 지역 여행.
* 환영식

일시: 2009년 3월 9일 (레가스피에 도착)

장소: 린뇬 힐, 알바이 YMCA

목적: 다양한 문화들을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과 지역민들에 대한 이해를 넓힘.

내용: 린뇬힐 등반을 통해 지역의 전체적인 모습 파악.

지역민들이 즐기는 음식 맛보기.

춤과 노래 등 YMCA에서 준비한 공연 관람.

* 영어 수업

일시: 2009년 3월 10일 ~ 3월 20일 (4월 7일 ~ 4월 8일, 4월 18일)

장소: 알바이 YMCA

목적: 지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습득.

내용: 의사소통 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익히기.

문법, 어법 및 발음 익히기.

저널작성과 작문 수업을 통한 영어로 글쓰기 훈련.

간단한 테스트로 실력 점검하기.

* 비콜/알바이 문화 수업

일시: 2009년 3월 9일 ~ 3월 13일

장소: 알바이 YMCA

목적: 지역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한 비콜 지역 고유의 문화와 언어 이해.

원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 습득.

내용: 어렵지 않으면서도 소통이 가능한 기본적인 의사표현 익히기.

지역의 위치와 지리, 명소에 대한 인지.

비콜 지역의 유명한 음식, 특산품에 대한 인지.

* 지역 명소 탐방

일시: 2009년 3월

장소: 알바이

목적: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 명소 탐방을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역사 기록 및 보존 방법과 그 현장에 대한 이해.

내용: 바카카이 – 화산 피해 지역에 속했던 비치 여행.

마욘 화산 – 레가스피의 상징이자 앞으로 봉사 활동을 하게 될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화산을 둘러봄으로써 지역의 역사(특히 재난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해 넓힘.

빅토리 빌리지 – 지역의 극빈층이 모여 사는 곳과 대조적이었던 주변 환경 비교를 현재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부격차 파악.

Hoyop-Hoyopan 동굴, Ruin Chuch.

* CO / CD 수업 (Community Organizing / Community Development)

일시: 2009년 3월 16일 ~ 3월 20일

장소: 알바이 YMCA

목적: 앞으로 하게 될 커뮤니티 봉사활동과 관련한 이론적인 정보 습득과 봉사자로서의 자세 정립.

내용: 커뮤니티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한 배경과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 점검.

* MEETING AND TRAINING

일시: 2009년 3월

장소: 알바이 YMCA, Anislag, Daraga

목적: 앞으로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과 각자의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내용: SK멤버 미팅 (Anislag 정착촌 출신 청소년 모임) – 데이케어 센터 및 핸디크래프트 일 함께 진행.

놀이터 플랜 짜기 – 자원봉사자로 일할 노동자와 책임자를 만나 앞으로의 공사 계획을 세움.

핸디크래프트 트레이닝 – 지역민에게 효과적인 마케팅과 판매의 방법을 알려줌. (핸디 크래프트는 이 지역의 수입원이 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닝을 통해 좀 더 빠르고 많은 발전을 얻고자 했다.)

데이케어 센터 플랜 – summer class를 위한 플랜을 짜고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안 모색.

* 마가욘 페스티벌 참가

일시: 2009년 3월 30일 ~ 4월 30일

장소: Peñaranda Park.

목적: 지역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Anislag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역할로 참가함으로써 커뮤니티에 실제적인 이익을 주고자 함.

내용: 핸디크래프트 상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 내내 판매활동을 지속함.

**Ⅱ. DESCRIPTION OF THE WORK PLACE (with background information)**

우리가 5개월 동안 일할 ANISLAG이라는 지역은 태풍 피해가 잦은 태평양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년 약 20여개의 태풍이 발생한다. 2006년 11월 레가스피 마을을 감싸고 있는 마욘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엄청난 위력을 지닌 태풍 ‘두리안’ 동시에 찾아왔다. 활화산이 거대한 용암을 분출한데다 홍수 피해까지 겹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13,000 가구가 거주지를 잃었다.

이 후, 레가스피에는 10개가 넘는 이재민 정착촌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 중의 하나인 Anislag이라는 지역에서 5개월간 자원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마을은 YMCA, APAY, UNDP의 지원을 받아 세워졌다. 그들은 55개의 집을 재건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고, 비즈니스 트레이닝을 시작하였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나눠주고, 이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바카 잎과 코코넛 줄기로 만든 수공예품 가방을 만드는 트레이닝을 시작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리가 5개월간 일하게 될 지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와 같다. 화산과 태풍 피해는 이미 2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어느 정도 복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 곳에서 할 일이란 바로 그 미완성된 부분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다.

**Ⅲ. MONTHLY EVALUATION**

1. 좋았던 점

필리핀에 도착한 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이 곳의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곳의 문화가 새롭고 여기서도 ‘새로운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과 그들과 나눈 많은 이야기로 미루어보아 우리는 이미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남은 더 많은 날들을 위한 훌륭한 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바이 주변의 유명한 관광지 및 역사적인 흔적이 담긴 곳들을 여행한 것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특히 바카카이라는 바닷가로 하루 동안 여행을 갔을 때, 가는 길에 창 밖으로 본 큰 돌들이 생각난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돌이었지만 그것은 마욘 화산이 폭발했을 때 떨어져 사람들이 살던 집과 기타 여러가지 것들을 부수고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크고 검은 돌들이 흩어져 있는 벌판을 봤을 때, 우리는 마치 그 화산 폭발의 현장에 있는 것만 같았고 그 때 그 일을 체감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또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들었던 영어 수업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아서였는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도착함과 동시에 현지 스탭과 영어로 소통을 해야 했음에 놀랐고 앞으로의 날들이 걱정됐었다. 영어 수업은,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길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았지만 (영어 수업은 근처에 있는 비콜대학의 교수가 지도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실제로 처음 왔을 때보다 사람들과 소통이 더 잘되고 있고, 그것은 물론 실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람들간에 진정한 소통을 하는 데 있어 언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물론 더 중요하겠지만 언어가 자유롭지 않다면 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영어와 비콜어를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3월 마지막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활동을 하면서 각자가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름의 계획을 짜야 한다.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에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다.

1.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

필리핀에 도착한 후부터 지금껏, 새로운 문화에 받아들여지는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현지인처럼 되자’는 우리의 목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 스탭의 집은 그간 우리가 살아왔던 곳, 혹은 오기 전에 생각했던 곳과는 매우 달랐다. 자원봉사자의 신분에 걸맞지 않다 싶을 정도로 생활환경이 너무나 훌륭했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재난지역의 상황과도 매우 달랐다. 게다가 가사도우미도 있어 우리는 어떠한 집안일도 하고 있지 않다. 이 곳에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 문제 의식을 느껴 집안일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이 곳에서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도 다 하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스탭에게 들었던 대답이라고는 “일하느라 집안일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처음부터 딜레마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현지 스탭이 소비를 하는 씀씀이가 크다 보니 뭐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는 경향도 있었다. 주로 먹을 것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문제가 되었다.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정크 푸드를 사는 경우가 많았고 잦은 외식에, 우리의 양보다도 훨씬 많이 사는 그 습관이 갈등을 불러 일으킬만했지만 주말에 한 평가회 때 어느 정도 우리의 생각을 표명했고 그 후 같은 일이 심하게 반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 부족을 걱정할 정도로 돈을 많이 쓰는 일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 역시도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치지 못했고 예산에 대해 깊이 고려해 본 적이 없음은 역시 잘 못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농담을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에 불거진 문제이다.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담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은,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농담을 하는 그들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것은 가끔 오해를 낳았다. 우리를 놀린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혹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한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러나 사실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의 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농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즐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이 곳에 있는 시간은 5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다 보니 문제가 없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트레이닝 기간이어서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앞으로 일에 관련된 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다.

**Ⅳ. RECOMMENDATION**

언어에 관련한 문제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미 우리는 영어나 간단한 비콜어를 많이 익혔고 소통에 크게 지장을 느끼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농담을 하는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는 그저 ‘문화적인 차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이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고 실제로 농담은 이 사람들의 유쾌한 문화이다. 놀림이나 무시를 받는다고 여긴다고 해석할 경우 문화 상대주의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매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 곳에서 보낸 시간은 한 달 뿐이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많은 날들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계속 함은 물론이고 이 곳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을 가치있게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Ⅴ. UPCOMING ACTIVITIES**

3월은 적응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진행한 일은 많지 않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업을 듣거나 회의를 할 때도 항상 함께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된 후에는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 각자의 계획에 맞게, 각자의 동료들과 미팅도 하고 계획도 하며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과 모든 기록은 각기 다른 위치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은 3월에 한 일을 바탕으로 세운 4월에 대한 계획이다.

1. Playground (강세민):

놀이터 공사에 필요한 물품 요청 및 구입.

놀이터 레이 아웃과 참가자(관계자 및 노동자) 프로파일 작업.

조경 정비와 통로 만들기.

다른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작업.

1. Day Care Center(이민하, 원지은):

말로바고 데이 케어 센터 졸업식 준비.

여름 학기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 작업.

수강생 및 자원봉사자 프로파일 작업.

여름 학기(4.15~5.22)를 위한 수업 계획.

비콜 대학에서 진행하는 “아이들 교육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 참가.

1. Handicraft(김희곤):

마가욘 페스티벌에서 진행하는 트레이드 페어 참가. (부스에서 핸디크래프트 상품 판매)

상품 홍보를 위한 브로셔 작업.

판매 일지 작성.

자원봉사자 및 핸디크래프트 담당자 프로파일 작업.

1. Administration(송유림):

커뮤니티 활동에 관련한 데일리 리포트 작성.

필리핀 YMCA와 한국 YMCA에 보낼 3월 리포트 작성.

교통비와 식비, 기타 생활비 정산.

커뮤니티 활동 모니터.

임원 회의 참가.

1. General plan

데일리 리포트 작성 (국문, 영문)

한국YMCA에 보낼 프로포잘 논의.

라온아띠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에세이 작성.

각자 자신의 일 충실히 기록하기.